



공동체 체험과 변화

성인경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첨단 경쟁사회가 될 수록 좋은 공동체나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좋은 교회가 더욱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바쁜 일상을 떠나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성도 고양하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체험을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지식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경제 공동체” 등입니다. 본래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기독교적으로는 흔히 “하나님과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생활 집단”을 의미합니다. 라브리공동체는 주로 청년 대학생들이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찾아와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가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산사 체험(山寺 體驗)”이란 말이 있듯이, 멀지 않아 “공동체 체험(共同體 體驗)”이란 말이 유행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원하기는 라브리공동체에는 역마살이 낀 여행객들이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낭만적 방랑자들이나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찾고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여기에서는 라브리에서 있는 공동체체험의 한 토막을 나누어 드립니다.

라브리의 ‘공동체 체험’ 이야기

첫째, 안식과 휴식이 사람을 바꿉니다. 라브리에는 인생의 기로에서 결단을 앞두고 있는 고뇌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실컷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인즉,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간다.”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희들은 밥해 주고 재워주고 같이 놀아 준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청년들의 변화에는 안식과 휴식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름에 다녀간 학생들은 족구와 물놀이를 실컷 했습니다. 오전에는 머리가 아프도록 공부를 했지만 매일 오후에는 강이나 바다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라브리에는 아직 수영장이 없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서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한 후에는 ‘샤워’ 정도로는 뜨거워진 몸을 식힐 수가 없었는지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앓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다이빙을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같이 즐기며 놀았던 것이 추억에 남습니다.

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열왕기상19:3-12) 그는 한 때 영적 거인이었지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치유책은 영적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로렘 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평소에 하는 직업적인 일을 멈추고, 잘 먹고 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라브리에서 인생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과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맞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 건전한 놀이와 장난이 사람을 바꿉니다. 지난 겨울에는 ‘벽난로 콘서트’를 잇을 수 없습니다. 홍규의 제안으로 주일 저녁마다 벽난로 옆에 커피 한 잔을 들고 둘러 앉아 기타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자작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홍규 부부의 애창곡을 들으며 눈물을 짓곤 했으며, 동네 목사님 부부의 흘러간 가요도 감상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에스키모 집 ‘이글루’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눈 집에서 웅기종기 앉아 먹는 ‘라면 맛’이 어땠는지 상상이 됩니까?

옛날 다윗의 “아둘람(adullam)”에서도 이런 놀이와 장난이 있었습니다. 청년 세 명이 자기들의 지도자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시름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잠시라도 달래주려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다녀오기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엉뚱한 장난이며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지키고 있던 전선을 넘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헬까지 약 15km를 왕복 8 시간 이상 야간 행군을 한 끝에 다윗의 우물에서 물을 한 통 길러 왔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땅에 부어버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삼23:14-17,대상11:15-19) 목숨을 건 부하들의 충정으로 다윗은 회복되어 나중에 왕이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윗 왕국의 중요 지도자들이 됩니다. 건전한 장난과 놀이 그리고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같이 만났던 곳이 “아둘람(adullam)”이었듯이, 라브리도 사랑과 의리, 건전한 놀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정이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작은 배려와 존중이 사람을 바꿉니다. 공동체에 살다보면 작은 일에 감동합니다. ‘맥주빵 해프닝’을 들어보셨습니까? 독일계 하드웨어 회사인 헤펠레 코리아(Häfele Korea) 가족과 함께 지내며 생긴 이야기인데, 한 분이 라브리에 올 때 차 트렁크 안에 맥주를 잔뜩 사 두었다가, 강의가 다 끝난 밤에 저에게 찾아와서 “맥주를 좀 마셔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다니 얼마나 정직한 분입니까? 그 전에는 허락도 없이 밤에 마음대로 마시고 아침 식사를 거른 분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거절한 후에, “만약 그 맥주를 제 아내에게 갖다 주시면 맥주 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맥주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2007년 11월 18일 아침, 서울 사랑의교회 청년들과 함께 약 60여명의 라브리 식구들은 ‘맥주빵’을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맥주 주인은 그 날 아침에 ‘맥주 기증자’가 되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며, “라브리에서 술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는 체험을 했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돌아간 후에, “언제고 기회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라브리를 집 식구들과 한 번 가겠습니다. 제가 가게 된다면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유 시간을 많이 주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맛있는 포도주를 두 병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다음에 그 분이 라브리에 다시 오시면 맥주보다 그 분이 더 좋아하시던 머루주를 한 잔 드릴 생각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작은 배려가 낳은 이야기입니다.

넷째, 사랑과 섬김이 사람을 바꿉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매우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1)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접하거나, 2)포근하게 잘 침대를 준비해 주거나, 3)벗어 놓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거나, 4)아플 때 챙겨주거나, 5)걸음걸이가 이상한 청년에게는 걷는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6)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눈 감아 주는 주거나, 7)게으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8)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을 참는 것이나, 9)공동체 생활을 피곤해 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밥투정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은 것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간사는 밥투정이 심한 학생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죽, 밥, 빵, 생식 등 세 가지, 네 가지 음식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기도와 말씀은 제쳐놓고 공책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공동체는 섬길 일이 많습니다.(사도행전 6:2의 ‘공책’란 말은 이웃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table serve’라는 고어(古語)입니다.) 꾸중하거나 타이러 때도 있어야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맛보고 난 후에야 스스로 변화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섬김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고든콘월신학교 미국 학생이 제게 한 말입니다. “지난 1년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명하다는 석학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지식과 경건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내가 놀랐던 것은 그들이 너무 바빠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저는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가능하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만 말입니다.

다섯째, 노동과 일이 사람을 바꿉니다. 라브리에서는 주일과 쉬는 날을 빼고는 매일 만나질 육체적인 일을 합니다. 집 청소, 빨래, 이불 정리, 채소 밭 가꾸기, 페인트 칠 하기, 정원 가꾸기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일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비를 절약하기에 좋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기회가 되며 자기 훈련에도 유익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거나 일 하는 보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씻기도 싫어하는 아주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령껏 일하는 사람도 많 습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러워 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들은 모두 그만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화장실 청소 등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한 학생들일수록 친구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라브리에서는 일을 맡길 때는 1)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도록 가르칩니다. 한 가지 일이라

도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하도록 권면합니다. 2)자기만의 일거리, 즉 기획을 하든지 발로 뛰든지 밥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자기만의 일이 있도록 합니다. 자기 일은 없이 남의 일만 뒤치다꺼리하거나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말로만 지시하거나 머리만 굴리는 일 말고 손수 자기 손으로 하도록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데살로니가 전서 4:11-12) 제 아내가 제보다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째, 공부와 진리가 사람을 바꿉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시끌벅적 떠들며 싸우듯이, 라브리에서도 처음 몇 주 동안은 말싸움이 잦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그렇게 살다보면 고운 정 미운 정이 들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나 알량한 자존심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영성의 색깔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간의 학문적 신앙적 배경과 한계를 알게 되면서부터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에서 비록 논리나 지식이 밀리더라도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친해 졌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바로 공부할 때고 진리를 논할 때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벽난로 옆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 기준과 진리가 없으면 토론은 엉망이 되고 공동체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불꽃 튀는 논쟁과 토론 중에도 ‘최종 권위(the final authority)’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라브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사상을 찾고 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공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초로 모든 지식과 학문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립하여 ‘지식의 대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춘성 간사는 “서양 대학교의 출발은 본래 수도원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적이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진리의 전당이 될 때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방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성령과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라브리에서 체험하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짓된 삶으로부터 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역사와 그 위대한 열매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옛 사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의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성경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혹은 “회개 한다”는 말은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즉 ‘삶 전체의 방향수정’을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패역한 세상”의 삶의 패튼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금문제로 그랬고(행 5:1-16),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이 그랬습니다.(행8:14-24)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게모)와 살

있던 고린도교회 교인이 그랬고(고전5:1-13), 음행, 즉 매춘을 일삼는 교인들이 그랬습니다.(고전 6:12-20)

회개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씩 혹은 잠깐씩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핫라인이 제대로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친밀도 혹은 그분과의 관계의 정도를 말해 주는 나침반입니다. 관계가 뜨거울수록 핸드폰이 바빠지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기도도 바빠집니다. 제가 라브리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학생들이 조용히 기도하며 목상에 잠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라브리를 체험한 바가 있는 김복경(전 런던한인교회 목사, 에스라성경대학교 총장)은 “라브리는 살아있는 인생 도장이다.”라고 했는데, 태권도 도장에서는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라브리에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휴식, 건전한 놀이와 장난, 작은 배려와 존중, 서로 섬기고 돕는 사랑, 알맞은 노동, 논쟁과 토론 그리고 공부를 통한 진리 탐구, 기도와 예배 찬양 등을 통해 사람들이 인생을 배웁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도 있고 라브리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기도 가족들의 헌신적인 수고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